

## 삼성바이오에피스, '온트루잔트' 150mg 판매 허가

# 유방암 치료제 대용량도 승인

다양한 처방니즈에 적합한 제품 허셉틴 작년 매출 약 7.2조 기록 마케팅파트너사 머크와 출시 준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방암 치료제 '온트루잔트(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온트루잔트의 대용량 버전인 420mg 제품의 판매를 승인 받았다.

온트루잔트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2019년 1월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허셉틴은 초기 및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서 2019년 기준 60억3900만 스위스프랑(약 7조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온트루잔트 최초 판매 허가를 150mg 용량 제품으로 승인 받은 뒤, 의사, 환자 등의 다양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랩

처방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용량 제품 허가를 추진해 왔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마케팅 파트너사 머크와 함께 온트루잔트의 미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번 대용량 제품 승인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에 앞서 지난 해 허셉틴의 원 개발사인 제넨테크와 진행중이던 특허 분쟁에 합의하며

제품 출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바 있으며, 계약 조건 상 출시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유럽 시장을 통해 확인해 본 바와 같이 트라스투주맙 성분 의약품은 다양한 처방 니즈가 존재하므로, 대용량 제품을 함께 시장에 선보여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국내 최고권위 '보령의학상'에 권성원 회장

비뇨의학과 의료진과 무료 진료 17년간 약 8.8만명 진료 봉사

2001년 2대 회장에 권 회장이 취임한 이후 협회는 2003년부터 국내 최고의 비뇨의학 권위자들과 함께 대학병원급의 진료 봉사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 같은 전문의학자들의 집단적인 재능 기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봉사활동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 권위의 의료봉사상인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한국전립선관리협회 권성원 회장(사진)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권 회장은 2001년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2003년부터 비뇨의학과 의료진들을 직접 모아 전남 고흥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도서벽지 전립선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 사업을 17년째 펼쳐오고 있다. 권 회장은 17년간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통해 약 8만8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권 회장과 함께 한 자원 봉사자만도 연인원 1만4000여명이며, 봉사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총 5만킬로미터에 달한다.

한국전립선관리협회는 노인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대표적 성인병인 전립선질환에 대한 계몽과 검진사업을 목적으로 1995년 서울의대 김영균 학장이 창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협회는 영세민을 위해 서울 근교 보건소를 순회하며 검진 및 강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4년 동안 지속해 온 협회의 기본사업으로 매주 목요일 서울 및 근교 보건소를 찾아 전립선 질병에 대한 강좌와 기초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매회 200여 명의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약 6만7000여명의 노인들이 전립선 질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검진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권 회장에게는 상패와 순금 10돈 메달,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된다.

/이세경 기자

## 희귀질환 정보 모은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자부 협력 5개 정부·출연연 컨소시엄 구성 2만명 이상 임상정보 등 데이터 수집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범 부처로 시행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5개 정부·출연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희귀질환자 모집 및 선도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총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

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에 임상정보나 유전체 데이터가 확보된 사업은 '선도사업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의 연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전체 데이터는 유전체 분석기관과 국가생명연구지원센터(KOBIC)에서 각각 전장유전체분석 및 변이 분석을 통해 생산될 예정이다.

수집된 임상정보와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생명연구지원센터(KOBI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원칙적으로 공유해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CIRN)를 통해 산·학·연·병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진단참고용 보고

서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에 의존하는 유전체 데이터 분석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신약·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연계한 디지털헬스기기 등 관련 서비스 확산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민감 정보인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집·생산 단계에서 각각의 아이디(ID) 부여 및 폐쇄망 구축을 통해 데이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추진 계획은 지난 12일 개최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

## 오상헬스케어 코로나19 진단키트 유럽 대규모 수주

250만명 테스트 수출계약 체결

오상자이엘 자회사인 오상헬스케어는 이탈리아, 루마니아로부터 250만명 분 테스트 물량의 수출계약을 20일 체결하고 매주 제품을 선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오상헬스케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수출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번 이탈리아, 루마니아와 체결한 수출물량은 주단위로 선적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추가 수주에도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생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진단검사를 하는데 보통 1~2일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진단키



오상헬스케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 테스트

트는 6시간 이내로 진단할 수 있어지면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이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하원의원이 한국의 진단키트는 부적합하다고 발언했던 미국도 우리 국내 진단키트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현재 美 FDA 리뷰과정에서 나온 보완자료를 완비한 최종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美 FDA 긴급사용승인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 해브앤비, 11번가와 업무제휴 협약

핵심 강점 결합 단독상품 개발 V커머스 확대, 단독 프로모션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 자르트와 남성 컬러 코스메틱 브랜드 DTRT의 모회사 해브앤비가 커머스포털 11번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커머스 시장 내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해브앤비 본사에서 해브앤비와 11번가는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희봉 해브앤비 국내사업본부장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해브앤비는 뷰티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소비층인 Z세대, 밀레니얼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커머스 기업 11번가와 협업을 결정했다. 해브앤비는 11번가의 축적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타겟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채로운 V커머스 콘텐츠 기획, 단독 상품 출시 및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디지털 행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브앤비는 먼저 11번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닥터자르트 단독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에 황상연씨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20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신임 대표이사에 황상연씨(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황상연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LG화학 바이오텍 선임연구원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증권사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과 화학산업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약했다.

/이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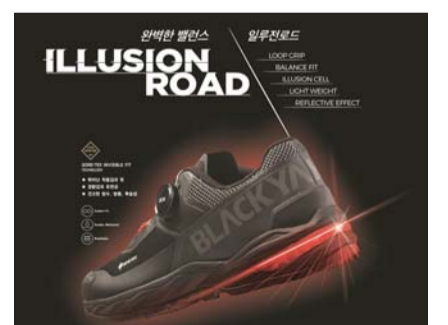
## 블랙야크, 완벽한 밸런스 워킹화 출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워킹화 신제품 '일루전 로드 GTX'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일루전 로드 GTX'는 제주의 다양한 날씨와 자연환경에서 받은 영감을 블랙야크의 혁신 기술로 구현해내며 오프로드 워킹을 위한 완벽한 밸런스를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완벽한 밸런스의 핵심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완성된 '웨이브 일루전 미드솔(중창)'에 있다. 제주의 밀려오는 파도에 영감을 얻어 내외측 패턴을 다르게 한 미드솔은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며 균형 있는 발걸음을 유지해준다.

미드솔 사이에 넣은 '일루전 겔'은



걸을 때 노면에서 받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준다.

제주 주상절리의 독특한 형상을 연상하게 하는 루프그립 아웃솔(밑창)은 탁월한 접지력으로 다양한 지형에서도 믿고 디딜 수 있는 안전한 워킹이 가능하다.

/조효정 기자 princess@